

##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박 대 현\*

### 〈일러두기〉

#### · 용어 및 해설

- 한글을 위주로 사용하였으나 서명,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나 외국어는 괄호에 넣었다.
-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어 또는 그 음가를 알 수 없는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수록하고 그 번역문 또는 음역을 괄호에 넣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였다.
- 연대는 서기로, 월력은 양력을 사용하였으나 부득이 음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에 그 표시를 넣었다.
- 조선조부터 1949년 이전의 국호는 편의상 조선으로 통일하였다.
- 제주도는 제주로 표기하였다.
- 지도의 크기는 “세로×가로cm”로 표시하였다.

#### · 약물

- 잡지·신문 등을 포함한 동양서의 제목은 『』로, 잡지·신문 등의 기사 및 논문은 「」로 표시하였다.
- 잡지·신문·지도 등을 포함한 서양서의 제목은 한글번역문을 사용하였으나, 처음에 한하여 원문을 이탤릭체로 괄호에 넣었다. 잡지·신문의 기사·지도 및 논문은 「」로 표시하였다.
- 지명 또는 특별한 사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 ’로 표시하였다.
- 본문중 인용 부분은 “ ”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 머리말

우리나라가 서양에 처음 알려진 것은 1255년 경 원조(元朝)에 파견된 프랑스인 뤼브뤼크가 『뤼브뤼크 여행기』에서 ‘섬의 정부 카우레’라고 하는 고려에 관한 기록에서다. 우리나라로 추정되는 모습이 서양지도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1554년 로포 호멧의 지도에서이고, 우리나라

\* 영월책박물관장

이름이 서양지도상에 처음 기록된 것은 1568년 두라도의 지도에서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서양인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 12월 일본군을 따라 웅천항에 도착한 스페인 선교사 세스페데스 신부다. 그 후 1653년 8월 네덜란드의 스페르웨르호가 폭풍을 만나 하멜을 비롯한 일행 36명이 제주에 표착하니, 이들은 제주를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다.

한편 제주로 추정되는 모습이 서양지도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1635년 블라와의 「중국지도」에서다. 이때의 표기는 '도적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양인들이 제주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 1655년 마르티니오의 『중국지도첩』에서는 제주의 표기를 말미 풍부한 섬의 뜻으로 '풍마도'라고, 1668년 하멜의 『하멜표류기』에서는 '켈파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후 서양지도상에서 '풍마'와 '켈파르트'는 제주의 명칭으로 알려져 오다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풍마'는 자취를 감추고 주로 '켈파르트'만 남게 된다. 제주의 명칭이 '제주'로 알려진 예는 1737년 당빌의 『신중국지도첩』에서 '제주'의 중국어 발음을 음사한 '지조우'가 처음이며, 그 후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도가 더러 발견되고 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켈파르트'도 점차 사라지고 비로소 '제주'로 알려지게 된다.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13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기 사이에 전개된 우리나라와 서양과의 관계를, 서양지도를 통해 그들의 제주관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서양지도상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을 시대별로 비교해 변천 과정을 구명해 보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필자의 졸저 『서양인이 본 조선』에서 그 기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은 1655년부터 1949년까지 약 300년 동안에 서양의 선교사·탐험가·군인 혹은 학자들이 조선에 관하여 관찰하고 연구한 바를 서술한 188종 261판본 287책의 여러 서양어계 도서들을 서지학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소개된 내용과 자료들을

통해 비로소 제주와 서양간의 교류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1655년부터 1904년 사이에 서양에서 제작된 제주관계 지도 59종이다.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영월책 박물관 소장본과 「서양에서 작성된 한국의 고지도」 전시목록에서 선별한 것들로, 자료의 수집과 선별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료도 상당수 있을 것임을 밝혀둔다.

## I. 제주 · 서양 교류의 태동

### 1. 아랍문헌에 나타난 신라

우리나라의 존재가 중국이나 일본에 알려진 것은 역사 이전의 일이다. 그 후 우리나라가 서양에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만 했고 그 초기단계에 동양과 서양의 중간 교량역할을 이슬람 문화권의 아랍 · 이슬람제국이 하게 되었다.

9세기 중엽의 아랍 문헌에는 많은 아랍-무슬림들이 신라에 내왕했다는 사실과 함께 신라에 관한 여러 가지 귀중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sup>1)</sup> 이 기록들은 당시의 무슬림 상인이나 여행가 또는 학자들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아랍 · 이슬람제국의 지리학자 쿠르다지바(Ibn Khurd dhibah, 820~912)는 『제도로(諸道路) 및 제왕국지(諸王國志)(*Kitaābu'l Masālik Wa'l Mamālik*)』에서 다음과 같이 신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맨끝 칸수의 맞은편에는 많은 산과 왕(국)들이 있는데 그 곳이 바

1) 무함마드 칸수, 『新羅 · 西域交流史』, 檀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92, p. 2.

로 신라국이다. 이 나라에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일단 들어가면 그 곳의 훌륭한 때문에 정착하고야 만다. 이 나라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sup>2)</sup>

이렇듯 아랍문헌에 나타난 신라관계 기술은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신라의 자연환경과 인문지리관계, 그리고 무슬림들의 신라 내왕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3)</sup>

1154년에 이르러 무슬림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al-Idrīsī, 1100~1166)가 시실리아의 노르만 왕 로제 2세에게 『로제왕의 책(Book of Roger)』으로 알려진 『천애횡단갈망자(天涯橫斷渴望者)의 산책(散策)(Nuzhatu'l Mushtāq fi'l-khtirāqi'l Afaq)』을 저술해 바쳤는데 여기에 세계지도 1장과 세분지도 70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 1장의 세분지도에 여러 개의 섬을 그려놓고 '신라(sila)'라고 표기하고 있다.<sup>4)</sup>

이 세계지도는 그때까지의 지리학적 지식을 모두 정리해 집대성했으며 아랍·이슬람제국의 가장 번성기이자 신라와의 교역이 번창했을 때 만들어진 지도다.

## 2. 뤼브뤼크의 동방여행

1253년 교황 인노첸시오(Innocentius) 4세 및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이슬람의 동진(東進)을 막기 위해 원(元)나라 헌종(憲宗)인 대카안(Great Khan, 大汗) 몽케(Möngke)에게 친서(親書)를 전달하고 동시에 기독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프랑스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뤼브뤼크(Guillaume de Rubruck, 1220~1293)를 몽고에 파견했다. 뤼브뤼크는 그해 5월 7일 크림리아의 이탈리아 소식민지를 향하여 콘스탄티노폴을

2) 위의 책, p. 314, 재인용: 朴大憲, 『西洋人이 본 朝鮮 - 朝鮮關係 西洋書誌』 上卷, 壺山房, 서울, 1996, pp. 16~17 참조. 3) 무함마드 간수, 앞의 책, pp. 152~153 참조: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 17.

4) 무함마드 간수, 앞의 책, p. 151.



출발, 흑해를 건너 5월 21일 수닥(Sudak)에 도착하였다. 뤼브뤼크는, “타타르인들 사이에 있는 나를 발견하였을 때, 내게는 진정으로 내가 다른 시간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였다”<sup>5)</sup>고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1255년 트리폴리로 돌아온 뤼브뤼크는 『뤼브뤼크 여행기(*Itinerarium fratris William de Rubruquis de ordine fratrum Minorum*)』를 남겼는데, 이 책은 중세 아시아를 소개한 귀중한 문헌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섬의 정부 카우레’<sup>6)</sup> 라고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고려가 유럽에 알려진 최초의 기록이다.

### 3. 마르코 폴로의 동방여행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는 1271년부터 1295년까지 사이에 17년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는 등 티베트·버마·인도를 포함한 동양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이때의 여행기 『마르코 폴로 여행기(*The Travels of Marco Polo*)』<sup>7)</sup>는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의 정치·지리·풍속·인정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이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과 지리 탐험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교류를 촉진시키

5) 르네 그루쎈(Ren Grousset)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출판사, 서울, 1998, p. 400.

6) 貝塚茂樹 저, 李龍範 편역, 『中國의 歷史』, 中央新書 1, 서울, 1980, p. 239, 재 인용: 무함마드 간수, 앞의 책, p. 313;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 13.

7) 이 책의 원 제목은 『세계의 서술(*Divisament dou Monde*)』로서 영어로는 *Description of the World*로 옮겨지고 있다. 국역본으로 마뉴엘·콤로프 編, 金永基 譯, 『마르코·포로 大旅行記』, 東方文化研究院, 서울, 1956; 마르코 폴로 著, 鄭雲龍 譯, 『東方見聞錄』, 乙酉文化社, 서울, 1964(新裝版 世界思想全集 10, 1983); 曹佐鎬 譯, 『東方見聞錄』, 삼진사, 서울, 1975; 蔡義順 譯, 『東方見聞錄』, 학원출판공사, 서울, 1978(세계사상대전집 권11, 1993); 權美英 譯, 『東方見聞錄』, 세계교양사상백선 권3,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91; 최효 譯, 『東方見聞錄』, 홍신사상신서 권49, 홍신문화사, 서울, 1994;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출판사, 서울, 2000 등이 있다.

는 역할을 했다.

이 책의 내용중에는 고려를 지칭한 '카울리(Cauli)'<sup>8)</sup>란 말이 수록되어 있다.

## II. 제주관계 서양인들

### 1. 마르티니오

마르티니오(Martino Martinio, 1614~1661)는 이탈리아 예수회 신부로 중국에 파견되어 항저우(杭州)와 난징(南京)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는 한편으로 중국의 지리와 지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1651년에 일시 귀국해, 네덜란드의 지도 제작자 요안 블라의(Joan Blaeu, 1596~1673)의 도움으로 1655년에 『중국신지도첩(Novus Atlas Sinenisis)』<sup>9)</sup>을 간행했다.



〈사진 1〉 1655년 『중국신지도첩』의 「일본지도」

8)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세계철출판사, 서울, 2000, p. 225. 그러나 鄭雲龍은 '카울리(Kauli)' (마르코 폴로 著, 鄭雲龍 譯, 앞의 책, p. 120)라고, 金永基는 '카르리(Karli)' (마뉴엘·콤로프 編, 金永基 譯, 앞의 책, p. 193)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번역자들이 참고로 한 原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 Martino Martinio, *Novus Atlas Sinensis a Martino Martinio Soc. Iesu descript*

『중국신지도첩』은 『세계신지도첩(*Theatrum Orbis Terrarum, sive Novus Atlas*)』의 제6권에 해당하는 지도첩이다. 원래 『세계신지도첩』은 요안 블라위가 그의 아버지 빌렘 양스존 블라위(Willem Janszoon Blaeu, 1571~1638)의 세계지도첩 제작사업을 이어받아 완성시킨 지도첩이다. 이 지도첩은 1648년부터 암스테르담에서 라틴어 판으로 출간하기 시작해 1655년에 모두 여섯권으로 완간됐으며 각 권마다 독립된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처음의 세권은 1642년부터 1643년 사이에 간행된 화란어본 지도첩과 같은 내용인데 마지막 세 권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처음의 제1·2·3권과 제4권은 1648년에, 제5권은 1654년에, 제6권은 1655년에 출간됐는데 제6권이 바로 마르티니오가 작성한 『중국신지도첩』이다.

이 지도첩은 본문 171면, 서문 및 부록 등이 81면, 속표지 1장, 채색지도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장의 채색지도는 「중화제국신지도(Imperii Sinarum Nova Descriptio)」란 제하의 중국전도 1장과 중국의 성도(省圖) 15장을 비롯해 조선과 일본을 함께 그린 「일본지도(Japonia Regnum)」 1장이 있다. 19면에 달하는 카탈로그 중 마지막 장에는 라오둥(遼東)과 조선8도(朝鮮八道)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 조선의 명칭은 ‘코레아(Corea)’로 표기되어 있으며 반도(半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을 여러 개 그려놓고 있으며 강은 2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압록강(鴨綠江)이 ‘알로(Yalo)’로 되어있고 현재의 한강(漢江)으로 보이는 것은 명칭없이 표시되어 있다. 또 8도의 명칭은 비록 그 위치는 다소 부정확하나 그 중심지를 지도부호로 나타내면서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지도의 윗쪽으로부터 ‘함경(Hienking)’, ‘평안(Pinggan)’, ‘경기(kingki)’, ‘강원(Kianguen)’, ‘황해(Hanghai)’, ‘경상(Kingxan)’, ‘충청(Chungcing)’, ‘전라(Ciuenlo)’ 등으로 표기하고, 제주를 ‘풍마도(I. Fungma)’라고

---

us (*Theatrum orbis terrarum*, Vol. *II*), Cumprivilegio S. C. Maj. et Or d. F. Belg., Amsterdam, 1655.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한자(漢字)의 음가(音價)를 라틴어로 표기한 것으로 8도의 지칭이며, 제주가 원대(元代)에 목마장(牧馬場)으로 이용된 일이 있으므로 중국에서는 제주의 별칭을 말미 풍부한 섬인 '풍마도(豐馬島)'라고 부른것 같다.<sup>10)</sup> 이 지도첩은 당시로써는 개선된 조선의 모습을 서양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풍마도'라는 명칭으로 세계지도상에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 2. 하멜과 그 일행 36명

1582년 풍리이(馮里伊)란 사람이 제주에 표도했다가 곧 중국으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sup>11)</sup> 또, 1627년 네덜란드의 웰테브레(Jan Janse Weltevree)가 제주에 표착한 최초의 서양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0)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78~79.

이에 대해 신복룡은 '풍마'를 '탐라'의 誤記라고 보고 있다(H. 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하멜표류기』, 집문당, 서울, 1999, p. 11, 주11).

11)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京城, 1928, 下篇, p. 67("西洋人馮里伊等 이 漂到濟州어늘"); 李丙熙 譯註, 『하멜漂流記』, 博文文庫 9-10, 博文書館, 京城, 1939, p. 10, 註一("宣祖十五年 三月에는 西洋人 馮里伊란 者가 濟州島에 漂到"); 洪以燮, 「서울에 왔던 歐美人」, 『鄉土서울』 第1號,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 1957, p. 120("文獻撮要 所在의 西洋人 「馮里伊」…… 아마 그도 포츨갈 商人的 한사람이었을 것같다"); 金昌洙 譯, 『하멜漂流記』, 乙酉文化社, 서울, 1983, p. 285("西洋人으로서 朝鮮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 宣祖 一五年 三月에 西洋人 馮里伊"); 崔鍾庫, 『西洋인이 본 韓國民俗』, 教育科學社, 서울, 1989, p. 9("서양인으로 조선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 선조 15년 3월에 서양인 馮里伊<馮里伊>"); 權仁赫, 「17세기 조선의 對外認識과 하멜 漂着」, 『하멜 漂着地에 대한 학술세미나』, 제주도사연구회, 제주, 1999, p. 16("조선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서양인으로는 선조15년(1582)에 표착한 마리아<馮里伊>") 등.

위의 李丙熙와 洪以燮의 인용문 중 '馬'자의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으로 '馮'자의 誤記이다. 따라서 權仁赫의 인용문 중 '마리아(馮里伊)'의 '마(馬)'

그러나 풍리이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전해지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써는 그를 서양인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듯하다.<sup>12)</sup>

또 웰테브레가 조선에 표착한 곳은 일반적으로 제주라고 잘못 알려져 있고,<sup>13)</su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14)</sup>과 『제주도지(濟州道誌)』,<sup>15)</sup> 초등학교 『사회』 6-1,<sup>16)</sup> 사회과 탐구』 6-1<sup>17)</sup> 교과서 등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웰테브레가 표착한 곳은 제주가 아니고 경주(慶州) 근처 해안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8)</sup>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 12월 28일 일본군을 따라 웅천항(熊川港)에 도착한 스페인 선교사 세스페데스(G. de Céspedes) 신부다.<sup>19)</sup> 또 제주를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은 1653년 8월 16일 하멜(Hendrik Hamel, 1630?~1692)과 그 일행 36명이다.

1653년 8월 16일 새벽, 네덜란드의 스페르웨르호는 태풍에 밀려 제주

---

자는 '馮'자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또 崔鍾庫는 '빙리이(馮里伊)'라고 음역 했는데, 이는 '풍리이(馮里伊)'라고 해야 옳은 듯 하다. '馮'자의 音價는 "빙"과 "풍"이 있는데, 姓氏를 말할 때는 "풍"으로 읽어야 한다(張三植 編, 『大漢韓辭典』, 省文社, 서울, 1964, p. 1732 참조).

12)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 5.

13) 鄭載崙, 『閑居漫錄』, 第二卷: 金錫翼, 『耽羅紀年』, 瀛洲書館, 濟州, 1918, pp. 53~54.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1991, p. 36(박연 項, 韓榮國 기술).

15) 濟州道, 『濟州道誌』 第1卷, 濟州道, 濟州, 1993, p. 911.

16) 교육부, 『사회』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서울, 1998, pp. 54~55.

17) 교육부, 『사회과 탐구』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2000, p. 58.

18) 「接待倭人事例」, 『釜山市史』 第2卷, 釜山, 1963, p. 79: Gari Ledyard, The Dutch Come to Korea,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Seoul, 1971, pp. 32, 89~90 참조: 레드야드 編, 朴允熙 譯, 『하멜표류기』, 三中堂文庫 125, 三中堂, 서울, 1975, pp.51~52, 137 주6 참조.

19) 자세히는, 朴哲, 『예수회 신부 세스페데스 - 한국 방문 최초 서구인』, 西江大學校 出版部, 서울, 1987 참조.

남쪽 바닷가에 표착했다. 하멜을 포함한 36명의 생존자들이 제주 주민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하멜은 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8월 18일 아침에 좀 더 큰 텐트를 만드느라 분주했는데 정오 무렵 1천명 내지 2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기병과 군졸들인 듯 했다. …… 그 지휘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었으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린 손짓 발짓해 가며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로 가려 했다는 걸 말해 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우린 서로 의사 소통이 안 되었고 그들은 Japan(야판)이라는 말을 몰랐는데 왜냐면 그들은 Japan을 왜나라 혹은 일본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그 지휘관은 우리들에게 각각 술<sup>20)</sup> 한잔씩을 주게 하고는 텐트로 되돌려 보냈다. …… 약 한 시간 뒤에 우리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굶었고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해로울 거라고 생각한 때문인 것 같았다. …… 저녁에는 우리에게 쌀밥을 주었다. 그 날 오후에 일등 항해사는 관측을 하더니만 우리가 북위 33° 32' 에 있는 켈파르트(제주도)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sup>21)</sup>

20) 원서에는 'arac(아락)'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李丙熙와 강준식은 '燒酒'로, 金昌洙와 김태진은 '술'로, 신복룡은 '毒酒'로 번역 또는 추정하고 있다. 이병도는 이 부분을 '아락' 이라고 원어 그대로 음역하고 원저자의 주(쌀 혹은 椰子實 및 기타로 만든 술)를 밝히면서, '燒酒'를 이름 한 것 같다고 자신의 주를 더했다. 한편, 영한사전에는 'arrack'을 "아라크 술(야자즙·당밀 등으로 만드는 中近東의 독한 증류주)"(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프라임英韓辭典』, 동아출판사, 서울, 1989, 개정판, p. 140)라고, 불한사전에는 'arac(k)'을 "(쌀·사탕수수로 빚은) 리콰르, 아라크 소주"(李集榮 編, 『엡센스佛韓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1, p. 125)라고, 독한사전에는 'Arrak'을 "쌀로 만드는 인도의 火酒"(지명렬, 『동아프라임獨韓辭典』, 동아출판사, 서울, 1991, p. 130)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연구자들은 'arac'을 영어·불어·독어 등의 사전적 풀이에 근거하여 '燒酒', '술', '毒酒'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rac'은 제주도 토속 말인 '아래기(또는 '아랑주', '아랑기', '아랭이')의 음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아래기'는 소주를 이르는 제주도 토속 말이다(李基文,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서울, 1995, p. 247 참조).

21) H. Hamel, tr. B. Hoetink, *Verhaal Van Het Vergaan Van Het Jacht De Sp*

하멜 일행은 처음에 자기들이 일본 근처에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원주민의 옷차림은 일본인보다는 중국인에 가까웠다. 그들은 이곳이 중국 본토에서 추방된 해적들이 사는 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원주민이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일등항해사 헨드릭 얀스(Hendrick Janse)가 위도를 측정해 본 결과 자신들은 제주에 표착한 것을 알았다.

이들은 이듬해 6월(음력)까지 제주에서 생활하다가 서울로 이송되었다. 서울에서 약 2년간 머문 후 여수좌수영(麗水左水營)·순천(順天)·남원(南原) 등지에 분산되어 억류생활을 하다가, 1666년 8월(음력) 좌수영에 있던 하멜은 동료 7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해, 1667년 10월 나가사키에서 바타비아를 거쳐 1668년 7월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그는 귀국해 이른바 『하멜표류기』(*Journael van de ongeluckighie Voyagie van't Jacht de Sperwer van Batavia ghedestineert na Tayowan in't Jaer 1653*)를 발표하니, 이 책은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이 쓴 최초의 조선관계 출판물이 되었다.

이 책은 1668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초판본이 출간된 이후, 프랑스·영국·독일 등지에서 여러 차례의 번역본과 중판본이 나왔다.<sup>22)</sup>

### 3. 라 페루즈

라 페루즈(La Pérouse, 1741~1788)는 프랑스 해군사관 출신의 해양 탐험가이다. 그는 허드슨만(灣)에서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

---

erwer En Van Het Wedervaren Der Schipbreukelingen op Het Eiland Quelpaert en Het Vasteland Van Korea(1653~1666) Met Eene Beschrijving Van Dat Rijk, Martinus Nijhoff, 'S-Gravenhage, 1920, pp. 7~9; 헨드릭 하멜 저, 김태진 역, 앞의 책, pp. 23~25.

22) 『하멜표류기』의 異本 및 번역본에 대하여는, 李丙燕 譯註, 앞의 책, pp. 3~7; 레드야드 編, 朴允熙 譯, 앞의 책, pp. 202~207; 강준식,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서울, 1995, pp. 299~309 참조.

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1785년 프랑스정부는 그에게 세계일주 탐사항해를 위해 두 척의 프리깃함인 부솔(Boussole)호와 아스트롤라브(Astrolabe)호의 총지휘자로 임명했다.

그는 조사요원을 포함한 1,019명<sup>23)</sup>의 인원을 이끌고 1785년 8월 1일 브레스트(Brest)항을 떠났다. 1787년 5월 조선근해를 탐사하고, 1788년 1월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했는데, 그 이후 행방 불명이 됐다.<sup>24)</sup>

당시 이 항해에는 지리학자 베르니제(Bernizet), 의무대장 롤랭(Rollin), 천문학자 다줄레(L. Dagelet), 물리학자 라마논(Lamanon), 식물학자 콜리농(Collignon) 등 당대의 이름난 과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 탐험대를 조직하고 준비하며 배를 건조하는 데에 3년이나 걸렸으며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면서도 이 탐험을 계획한 목적은, 첫째로 모피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던 영국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둘째로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을 탐험하여 새로운 식민지 영토를 확보하며, 셋째로 인도와 캐나다를 영국에 빼앗기고 난 뒤이지만 해양국가로서의 이름을 안팎으로 떨치고 싶었던 데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라 페루즈가 탐험 임무를 수행하면서 본국으로 보내온 탐사 중간보고들은 밀레-뮈로(Milet-Mureau)가 정리해 1797년에 『라 페루즈의 세계일주 탐사항해(Voyage de La Pérouse autour du Monde)』란 제목으로 파리에서 4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다음 해인 1798년에 재판본이, 같은 해에 런던에서 영역본이, 그리고 1799년에는 스웨덴어역본 등이 잇달아 간행됐다.

23) 이에 대해 韓相復은 253명이라고 말하고 있다(韓相復, 『西洋學에서 본 韓國學』, 海潮社, 서울, 1988, p. 16).

24)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는 라 페루즈의 행방을 찾아 시드니로 수색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25) La Pérouse, tr. Samuel Odmann, *Resa Omkring Jorden af herr de La Perouse*, John Pfeiffer, Stockholm, 1799. 자세히는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94~95 참조.



이 책은 1785년 8월 1일부터 1788년 1월 26일까지의 항해기록을 집약한 것이다. 라 페루즈 일행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주로 자연지리학적인 조사와 해양기상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1787년 5월 21일 제주 근해로 접근한 후 남해를 거쳐 5월 25일에는 부산(釜山) 근해를 항해했으며, 5월 29일에는 동해안을 탐사하고 울릉도(鬱陵島)를 '다즐레 섬(Isle Dagelet)'<sup>25)</sup>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울릉도는 물론 조선에 상륙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조선인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불가능했으며 독도(獨島)를 발견하지도 못했다.<sup>26)</sup>

라 페루즈의 항해기는 모두 26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한 기술은 제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다. 이 중에서 제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787년 5월 20일 새벽에) 나는 항해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즉시 제주도를 향해 동북동쪽으로 키를 잡았는데 제주는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해협으로 진입하기 전에 맨 처음으로 흥미를 끈 육지였다.

1635년(1653년의 잘못된) 네덜란드 상선 스페르웨르호의 난파로 유럽에 알려진 이 섬은 조선왕의 지배하에 있었다.

5월 21일에는 날씨가 쾌청해서(경위도 계산을 위한) 달의 관측에 썩 좋았다. 이 섬의 최남단 위도는 북위 33°14'이고 경도는(파리기점) 동경 124°15' (현재의 그리니치 기점 경도로는 126°35'에 해당함)이었다. 나는 (해안에서) 2리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섬의 남동부 12리그의 해안을 주의 깊게 조사했고 베르니제는 윤곽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찾아내기는 무척 어렵다. 산봉우리는 6천피트 정도이고 거리는 18내지 20리그이며 섬 중앙에 솟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심할 나위없이 수원지(水源池)가 있다. 이 산록은 완만하게 바다로 뻗어 있고 마치 계단식 교실같은 모습으로 인가(人家)가 있다. 토양은 대단히 고지대(高地帶)까지 경작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작은 평야지대의 분할이 섬

25) 울릉도를 최초로 발견한 천문학자 Dagelet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다.

그 후 서양 지도상에서 울릉도는 'Isle Dagelet'로 나타난다.

26)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94~95.

의 조밀한 인구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망원경으로 보고 느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곡식을 가꾸어서 다양한 색조가 아주 그럴듯한 광경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섬은 모든 외방인(外邦人)과 어떤 통신도 금지된 나라에 속해 있었고 그 나라에서는 그들의 해안에 좌초된 불행한 사람들을 노예로 고용하고 있다. 스페르웨르호에 승선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18년(13년의 잘못임) 동안 자주 태형(笞刑)을 받으며 포로생활을 하다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해서 바타비아(Batavia)를 경유하여 암스텔담으로 귀환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실례(實例)로 해서 우리는 해안에 보트를 보낼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두척의 작은 배가 섬에서 떠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1리그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었고, 아마도 우리에게 조선의 해안에 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듯 했다.

나는 항로를 자정까지 동북동쪽으로 계속하다가 다음날 동녘이 틀때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이때의 기상상태는 약간의 안개가 끼었을 뿐이고 짙은 안개는 아니었다. 나는 이때 제주의 북동단이 서쪽으로 보이는 것을 알았으며 조선에 접근하기 위해서 북북동으로 침로(針路)를 바꾸었다.<sup>27)</sup>

#### 4. 홀과 맥레오드

엘리스(H. Ellis)는 1816년 영국의 암허스트(J. W. Amherst)경(卿)이 이끄는 견중사절단(遣中使節團)의 서기 겸 수행원에 임명되어 맥스웰(Maxwell)을 선장으로 한 알세스트(Alceste)호와 홀(B. Hall)을 선장으로 한 리라(Lyra)호와 함께 항해에 나섰다. 이 사행(使行)은 중국과의 정치적 교섭 이외에 황해(黃海)와 발해(渤海) 연안의 답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이 방면의 연구자들은 물론, 알세스트호의 군의(軍醫) 맥레오드(J. M'Leod)와 박물학자 에이벨(Abel), 군목 그리피쓰(J. Griffith), 화가 헤이벨(Havell) 등이 승선했다. 그들은 베이징(北京)에 도착하여 가경제(嘉慶帝)와의 면담을 기다리는 동안에 조

27) 韓相復, 앞의 책, pp. 16~18.

선의 서해안과 류큐(琉球)를 답사 실측할 목적으로 탐험을 결행하였다.<sup>28)</sup>

알세스트호와 리라호는 9월 1일 백령도(白翎島) 부근에 이르러 9일까지 서해 5도 및 장항만(長項灣), 고군산열도(古群山列島) 등을 둘러 보고, 조선의 주민들과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조선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때 조선에서는 마량진첨사(馬梁鎭僉使) 조대복(趙大福)과 비인현감(庇仁縣監) 이승열(李升烈)을 문정관으로 정하여 그들의 배에 파견하였다.<sup>29)</sup> 언어의 불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차례 만나 격의없는 의견과 정을 나누었다.<sup>30)</sup>

당시의 항해 기록인 엘리스의 『극동항해보고서(Journal of the Proceedings of the Late Embassy to China)』<sup>31)</sup>와 맥레오드의 『극동항해기(Narrative of a Voyage, in His Majesty's Late Ship Alceste)』<sup>32)</sup>는 1817년에, 홀의 『조선·류큐항해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28)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96.

29) 國史編纂委員會 編, 『朝鮮王朝實錄』 卷47,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973, 純祖十六年丙子七月丙寅條.

30) 박대헌, 「1백년 전 서양인들 눈에 비친 이 땅의 사람들-서양고서(古書)에서 본 조선인의 모습」, 『Morning Calm』 Vol. 16 No. 2, Korean Air Lines Co. Ltd., 서울, 1992, 2, p. 78.

31) Henry Ellis, *Journal of the Proceedings of the Late Embassy to China*, John Murray, London, 1817.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96~99 참조.

32) John M'Leod, Surgeon, *Narrative of a Voyage, in His Majesty's Late Ship Alceste, to the Yellow Sea, along the Coast of Corea*, John Murray, London, 1817; John M'Leod, Surgeon,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along the Coast of Corea, to the Island of Lewchew*, John Murray, London, 1818, 2nd ed.; John M'Leod, M.D.,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to China, Corea, and the Island of Lewchew*, John Murray, London, 1820, 3rd ed.; John Mac-Leod, *Capitaine Maxwells Resa p Gula Hafvet, I ngs kusterne af Corea och arne Liu-tchiu*, hos Palmblad & C., Upsala, 1820.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100~109 참조.

to the West Coast of Corea)』<sup>33)</sup>는 1818년에 런던에서 각각 출간되었다.

엘리스의 여행기는 이 사절단의 공식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으며, 맥레오드와 홀의 여행기에는 조선에 최초로 성서가 전래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홀의 『조선·류큐항해기』에는 조선의 서남해안을 측량한 해도와 조선에서 채록한 낱말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에는 상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맥레오드와 홀의 여행기 중에 '제주(Quelpaert)'를 지나쳤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관한 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9월 10일〉

오늘 아침 10시쯤에 우리는 닻을 올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해질녘에 우리는 모든 섬으로부터 벗어나니 이제 남동쪽에 있는 제주도(Quelpaert)를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해안에 잠시 머물렀으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여행자는 한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내심 있게 일을 처리해서 이 비사교적인 사람들이 보여 준 낯선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을 극복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추적했던 이 해안의 해도는 앞으로의 여행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이 책에 추가했다. 아주 황급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불완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행된 어떤 지도나 해도보다 더욱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sup>34)</sup>

33) Captain Basil Ha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John Murray, London, 1818; Captain Basil Hall, *Voyage to Corea, and the Island of Loo-choo*, John Murray, London, 1820, 2nd ed.; Captain Basil Ha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Abraham Small, Philadelphia, 1818.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110~119 참조.

34) B·홀 지음, 신복룡·정성자 역주, 『조선 서해 탐사기』, 집문당, 서울, 1999, p. 56.

## 5. 귀츨라프

귀츨라프(Karl Friedrich Gützlaff, 1803~1851)는 프로이센 출신의 독일 선교사이다. 그는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수업했고 영국 선교회의 파송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1831년 6월 쇄이틀(Shimle)호를 타고 방콕을 떠나, 1832년 2월에는 다시 로드 암허스트(S. S. Lord Amherst)호를 타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와 조선 등지를 항해했다.

저서로는 이때의 여행기인 『극동여행기(*Journal of Two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 1832*)』<sup>35)</sup>를 비롯하여 『중국 역사(*Geschichte des Chinesischen*)』,<sup>36)</sup> 『도광제전기(道光帝傳記)(*Leben des Kaisers Tao-Kuang*)』<sup>37)</sup> 등과 논문으로 「조선어 문법(*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sup>38)</sup> 등이 있다.

『극동여행기』는 이때의 여행기로, 255쪽부터 287쪽까지 조선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귀츨라프는 1832년 7월 17일 충청도 서해안 고대도(古代島)에 상륙해, 조선 조정에 통상요구서와 성경을 보내어 무역

35) Charles Gutzlaff, *Journal of Two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 1832*, John P. Haven, New York, 1833; Charles Gutzlaff,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Frederick Westley and A. H. Davis, London, 1834, 2nd ed.; Ch. Gützlaff, tr. J. Ekelund, *Nyaste Underr ttelser om stra Indien och China*, Hos B. M. Bredberg, Stockholm, 1836. 자세한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132~137 참조.

36) Karl Fridrick August Gützlaff, *Geschichte des Chinesischen Reiches von den Ältesten Zeiten bis auf den Friden von Nanking*, Hrsg. von Karl Fridrich Neumann, Stgt. und Tübingen, Cotta, 1847.

37) Karl Fridrick August Gützlaff, *Leben des Kaisers Tao-Kuang*, Leipzig, 1852. 자세한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150~153 참조.

38) Charles Gützlaff,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ese Repository*, Vol. 1, Canton, Nov. 1832, pp. 266~277. 자세한 이응호, 「Gützlaff 목사가 쓴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의 연구」, 『열프나 이응호 박사 회갑 기념 문집 - 문을 두드리는 이』, 성결교 신학교 출판부, 서울,

과 선교를 청원했으나, 조선 조정에서는 성경을 되돌려 보내며 거절했다.

그가 조선에 머문 기간은 1개월 정도지만, 그는 이 짧은 고대도에서의 생활 중에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섬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감자와 포도 재배법, 술 만드는 법을 일러주었다. 또 감기 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의료 활동도 했다.<sup>39)</sup>

그의 조선항해기는 7월 17일에 시작해 8월 17일에 끝났지만 그 후 3~4일 간 제주 부근 해상에 머문 것 같다. 그러나 귀츨라프가 제주에 상륙한 흔적을 그의 여행기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의 여행기 중에서 제주관계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8월 17일〉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양을 한 섬들을 지나갔다.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Quelpoert, 북위 32°51', 동경 126°23')는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이곳은 개발이 잘 되었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역관을 짓는다면 일본·조선·만주·타타르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안되면 이 섬을 선교 기지로 할 수 없을까? 중요한 지점인 제주도에 선교관을 세운다면 쇄국정책을 쓰는 조선 조정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 않겠는가? 조선 조정이 얼마만큼 이 섬에 대하여 억제 정책을 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이곳에 선교를 정착하는 문제가 뉴 질란드(New Zealand)<sup>40)</sup>나 래브라도(Labrador)<sup>41)</sup>나 그린란드(Greenland)<sup>42)</sup>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구자가 선교한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한가지 진실 - 이 섬들은 기독교를 수용하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sup>43)</sup>

1987, pp. 61~90 참조.

39)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p. 132~133.

40) 영연방의 일원. 남서태평양의 섬들로 구성됨.

41) 북미 동북부 허드슨(Hudson) 만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반도.

42) 북미 동북방의 세계 제일의 큰 섬. 대부분이 북극권에 속해 얼음으로 덮여 있음.

43) Charles Gutzlaff,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이처럼 귀츨라프는 제주를 둘러본 후 일본·조선·만주·타타르와 중국을 연결하는 무역관 설치와, 선교기지 개발을 희망하는 기록을 자신의 여행기에 남겼다.



〈사진 2〉 귀츨라프의 항해지도

## 6. 벨처

벨처(Edward Belcher, 1799~1877)는 영국 해군으로 1825년 비치(F. W. Beechey)가 지휘하는 블러썸(Blossom)호에서 3년간 측량담당 장교로 근무하고, 1830년부터 4년간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과 북부 해안을 측량하는 책임을 완수하여 해안선 측량의 권위자가 되었다. 1836년에는 측량선 설파(Sulphur)호를 지휘하여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쪽 해안선을 측량하고 1839년 말에 태평양을 가로질러

1832 & 1833, Frederick Westley and A. H. Davis, London, 1834, 2nd ed., p. 288; 이진호, 『동양을 섬긴 귀츨라프 - 한국에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의 일대기』, 도서출판 에이멘, 서울, 1988, pp. 74~75.

귀국 길에 올랐다. 그가 1840년 10월 싱가포르에 도착하자 중국 광둥(廣東)에서 일어난 아편전쟁에 약 1년간 참전하다가 1842년 7월 영국으로 돌아왔다.<sup>44)</sup>

그 후 1843년 1월 사마랑(Samarang)호를 지휘하여 중국에 이르는 항로를 정밀탐사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다. 1845년 4월 홍콩에 도착한 후, 5월에 다시 홍콩을 출항해서 류큐와 제주·거문도(巨文島) 일대를 탐사·측량한 다음, 일본·필리핀 등을 거쳐 1846년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때의 여행기 『사마랑호 탐사항해기(Narrative of the Voyage of H.M.S. Samarang)<sup>45)</sup>』를 1848년 런던에서 출간했다.

### ※ 사마랑호의 조선 남해안 탐사

19세기에 들어와 제주 해상에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게 되자, 당시 제주 지방관들과 주민들의 경계심은 고조되었다. 특히 1840년 12월(음력)에는 영국선 2척이 제주 가파도에 나타나 40여 명이 상륙하여 주민을 무기로 위협하고 소를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sup>46)</sup> 그 후 1845년 6월 25일 제주 동쪽 우도(牛島)에 벨처가 이끄는 사마랑호가 나타났다. 이때 제주에서는 벨처가 타고 온 이양선의 출현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되어 섬주민들은 한라산으로 피난 가는 사태가 발생했고, 육지와와의 뱃길도 끊어지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sup>47)</sup>

사마랑호는 그날부터 우도를 기지로 삼아 약 7주일 동안에 걸쳐 제

44) 박대현, 앞의 책, 上卷, p. 73.

45) Edward Belcher,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Reeve, Benham, And Reeve, King William Street Strand, London, 2 Vols., 1848.

46) 濟州道, 앞의 책, 第1卷, p. 930.

47) 사마랑호가 제주에 나타났을 때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제주에 유배 중이었다. 그는 당시 민심의 동요를 목격하고 아우 명희(命喜)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상황을 전하고 있다. 崔完秀 譯, 『秋史集』, 현 암사, 서울, 1986, pp. 271~272.



주와 거문도·거금도(居金島) 일대 해역을 정밀탐사·측량하여 해도(海圖)를 작성했다. 벨처의 항해기에는 3장의 지도가 별지(別紙)에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1장에 제주를 포함한 거문도·거금도 사이의 조선 다도해의 해도가 명시되어 있다.<sup>48)</sup>

이 해도는 크기가 51 34cm이며,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주 부분도에서는 제주를 켈파르트섬(Quelpart I.)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오클랜드산(Mt. Auckland)<sup>49)</sup>으로 지칭하면서 그 높이를 6,544피트(1,955m)로 기록하고 있다.<sup>50)</sup> 또 우도를 뷰포드섬(Beaufort I.)<sup>51)</sup>이라고 이름짓고 있다.

또 거문도와 거금도 사이의 다도해를 그린 해도에서는 거문도를 해밀턴항(Port Hamilton)<sup>52)</sup>, 거금도를 오클랜드섬(Auckland I.)으로 지칭하는 등 모두 47개의 지명을 붙여 놓았다.

나머지 1면의 해도는 사마랑호가 류큐(Greet Loo-Choo, 琉球)를 출발해 고토(C. Goto, 五島)를 지나 우도에 도착, 제주 근해를 일주 탐사하고 거문도와 거금도 등 다도해를 탐사한 후 다시 우도를 거쳐, 고토·나가사키·류큐열도를 따라 항해한 항로를 자세하게 작성해 놓았다.

제주 방문시 벨처는 오아순(吳亞順)이라고 하는 중국인을 통역으로 대동해 제주 주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조선의 문정관(問情官)은 정의현감 임수룡(任秀龍, 1803~?)이었고 통역은 역관(譯官) 이인화(李寅和)였다. 이들의 문정은 필담(筆談)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 소통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48) 이 해도의 명칭은 「Chart of the Northern Seas of China & Japan Including the discoveries of H. M. S. SAMARANG」이다.

49) 오클랜드는 영국 해군성 장관의 이름.

50) 한라산의 실제 높이는 1,950m이다.

51) 뷰포드는 영국 수로국장의 이름.

52) 해밀턴은 영국 해군성 차관의 이름.



〈사진 3〉 벨처의 제주 탐사 지도

당시의 문정에서 현감 임수룡은 벨처에게 조선 방문의 목적과 일정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벨처는 영국 여왕의 명에 의하여 방문하게 되었으며,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도를 작성하는 데 제주 방문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육지에 상륙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일련의 작업은 한 나라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만국(萬國)의 신하로서의 책무로 간주해야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 벨처는 임수룡의 인상착의에 관해서, 키는 약 5피트 6인치(약 168cm)로 준수하면서도 다부지게 생겼으며 희랍인과 비슷하다. 이마는 날카롭고(빠르고) 눈은 작지만 총명해 보인다. 체구에 비해 발은 작아 보이며 머리 스타일은 류큐인과 비슷하다. 모자는 매우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테는 약 2피트(약 61cm), 원뿔의 높이는 9인치(약 23

cm), 지름 3인치(약 8cm) 정도이며 공작깃이 부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53)</sup>

한편 사마랑호에는 군의관 아담스(Arthur Adams)가 동승하고 있었다. 그는 박물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조선인의 생김새와 복장·예절·무기·선박·제주의 풍경 등을 조사해 기록하였다. 그 중에는 식물 46종과 새 26종, 어류 7종, 곤충 19종, 거미 14종, 조개 29종, 그리고 해면(海綿) 2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벨처의 항해기 제2권 박물편에 소개되었으며, 1850년 런던에서 다시 『사마랑호 항해 동물지(The Zoology of the Voyage of H.M.S. Samarang)』란 제하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벨처의 항해기에는 또 다른 아담스(Ernest Adams)가 조사 편집한 「어휘집(Vocabulary of Languages)」<sup>54)</sup>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개 나라 및 지역<sup>55)</sup>의 단어 592개와 수사(數詞) 33개 등 모두 625개 어휘가 소개되어 있다. 조선어는 단어 531개와 수사 30개 등 모두 561개<sup>56)</sup> 어휘가 소개되어 있다.

그때까지 서양에 알려진 조선어어휘집으로는 브로우튼(W. R. Broughton)의 『북태평양탐사 항해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53) Edward Belcher, 앞의 책, Vol. 1, pp. 329~330.

54) Edward Belcher, 앞의 책, Vol. 2, pp. 533~571.

55) 12개의 나라 및 지역의 언어는 영어(English)·스페인어(Spanish)·말레이어(Malay)·비사야어(Bisayan)·Sooloo(Sulu, 필리핀군도어?)·Iloco(말레이시아어?)·Batan(Batak, 수마트라어?)·Cagayan(?)·Tagala(Tanggla, 자바어?)·중국어(Chinese)·일본어(Japanese)·조선어(Korean) 등이다.  
팔호 안의 ?는 확실치 않은 사항이다(陳佳榮, 『中外交通史』, 學津書店, 香港, 1987, p. 349; Sulu, p. 348; Batak, p. 345; Tagala 참조).

56) 이에 대해 韓相復은 558개라고 소개하고 있으며(韓相復, 앞의 책, p. 337), 金在勝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金在勝, 『近代韓英海洋交流史』, 仁濟大學校 出版部, 金海, 1997, p. 80). 그러나 필자가 원전을 확인한 결과 어휘수는 모두 561개였다.

North Pacific Ocean)』<sup>57)</sup> 중에 소개되고 있는 조선어 어휘 38개와, 홀(B. Hall)의 『조선·류큐항해기』 중에 소개되고 있는 28개의 단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벨처의 조선 남해안 탐사는 제주와 거금도 등의 해안선을 정밀 탐사하는 효시를 이루었으며, 아담스 (A. Adams)의 조선 관계 박물기를 남겼다.

## 7. 블레이크니의 제주해역 수로 조사

블레이크니(William Blakeney, 1834~?)는 1849년 영국 해군에 입대해 악테온(Actæon)호의 경리관으로 1856년부터 1861년까지 극동해역의 탐사활동에 참여했다.

1842년 영국에 의해서 중국이, 1854년에는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했고, 그 결과 조선 주변 해역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이를 견제하려는 열강들의 충돌해역으로 변했다. 1854년 3월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선전포고<sup>58)</sup>를 하자 러시아의 극동 해역인 조선 주변해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됐다. 1855년 영국함대가 타타르만에서 러시아 함대를 나포하려고 했으나 수로(水路)를 몰라 실패한 이후, 영국 해군성에서는 타타르만과 조선해역의 수로조사를 위해 악테온호와 도브(Dove)호를 출동시켰다.

1857년 악테온호의 베이트(T. Bate) 함장이 광둥에서 전사한 다음 워드(John Ward)가 이 배를 지휘했다. 이 배는 1859년 5월 6일 거문도에 도착해서 약 2주일간 제주해협을 비롯한 조선의 남해안을 조사했으며 5월 18일 거문도를 떠나 쓰시마(對馬島)를 거쳐서 6월 9일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에서 조사를 마친 후 6월 21일에는 울릉도를 탐사하고 타타르만과 일본 연안을 거쳐 다시 11월 23일 부산을 들러 상

57) William Robert Broughton,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 T. Cadell & W. Davies in the Strand, London, 2 Vols., 1804.

58) 크림전쟁(Crimean War, 1853. 10~1856. 2).

하이(上海)에 도착했다.<sup>59)</sup>

이 때의 극동 해역 수로조사 활동을 기록한 블레이크니의 『40년 전의 극동항해기(On the Coasts of Cathay and Cipango Forty Years Ago)』<sup>60)</sup>가 1902년에 출간됐다.

이 책의 조선관련 부분은 제6장의 조선해협과 일본해(Korea Strait and Sea of Japan)부분이다. 이곳에는 조선관계 해도 3종과 삽화 5종이 수록되어 있다. 해도의 제목은 「일본 남해지도: 1855(Charter of Southern Portion of Japan, 1855)」, 「일본지도: 1802(Map of Japan, 1802)」, 「일본남해지도: 1876(Charter of Southern Portion of Japan, 1876)」 등이다.<sup>61)</sup> 그러나 이들 해도에는 거문도와 거금도만 표시되어 있을 뿐 제주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 이 책에 수록된 삽화 중에는 '조선의 범선(Korean Junk)'이 있는데, 이 삽화는 1871년 6월 미국 아시아함대 사진촬영반이 찍은 사진을 정교하게 스케치한 것이다.<sup>62)</sup>

이 책은 블레이크니에 의해 씌여졌지만 거문도를 비롯한 조선해도의 원도면은 거의 모두 위드가 작성했다. 이 해도는 영국 해군성에 보고됐으나, 무슨 까닭에서인지 이 책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도 15종 중 제주 관련은 1종으로 「제주에서 대마도 및 고토(五島)(Quelpart to Tsu-sima and Goto Is.-Soundings-)」가 있다.

### Ⅲ.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

제주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려왔다. 개벽설화(開闢說話)의

59) 韓相復, 앞의 책, pp. 377~379 참조; 朴大憲, 앞의 책, pp. 392~393 참조.

60) William Blakeney, R. N., On the Coasts of Cathay and Cipango Forty Years Ago, Elliot Stock, London, 1902.

61) 위의 책, pp. 164, 167, 171.

62) 朴大憲, 앞의 책, 上卷, p. 393, 주5) 참조.

3성(姓) 중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이 신라에 입조(立朝)하여 탐라(耽羅)라는 국호(國號)를 받아와서 개국하였으므로 탐라로 불리다가, 1211년 고려 희종(熙宗) 때 제주로 개칭되었다. 고려말에 원나라와 고려에 번갈아 예속되면서 명칭도 수시로 바뀌었으나 1374년 공민왕 때에 원나라 세력을 몰아냄에 따라 제주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sup>63)</sup> 그후 지금까지 줄곧 제주라 불리어지고 있다.

한편 서양지도상에 우리나라로 추정되는 모습이 처음 나타난 것은 1554년 로포 호면(Lopo Homem)의 지도에서이고, 제주로 추정되는 모습이 처음 나타난 것은 1635년 블라외(Blaeu)의 「중국지도(China)」에서 '도적섬(I. de Ladrones)' 이라고 표기한 것에서부터이다.

그후 1655년 마르티니오의 『중국지도첩』에서 비로소 제주의 명칭인 '풍마도(I. Fungma)' 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난다. 1668년 하멜의 『하멜표류기』에서 '켈파르트(Quelpaert)' 라는 이름이 알려진 후 1687년 화란지도에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나게 된다. 그후 서양지도에 '풍마'와 '켈파르트'라는 이름이 함께 나타나다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비로소 '켈파르트'만 남게 된다. 또 18세기 프랑스 지도에는 '제주(濟州)'의 중국어 표기를 '지조우(Kiecheou)', '지조우(Kichew)', '지조우(Tsitcheou)' 등으로 음사(音寫)한 예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제주의 국제적 표기는 '제주(Cheju)' 또는 '제주(Jeju)'에서<sup>64)</sup> 제주(Jeju)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sup>65)</sup>

## 1. 도적섬

서양지도상에서 우리나라 또는 제주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곳에

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1991, p. 220(濟州島 項, 朴勝弼 기술).

64) 禹樂基, 『濟州觀光案内教本』, 韓國觀光地開發研究所, 서울 1984.

65) 2000년 6월경 제주도 정책기획관실은 '제주'의 영문 표기를 'Jeju'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도적(Ladrones)’ 또는 ‘도적섬(I. Ladrones)’이라고 표기된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1563년에 제작된 루이스(Lázaro Luis)<sup>66)</sup>의 해도를 들 수 있다. 이곳의 「동남아시아 해도」에는 조선으로 생각되는 반도부분이 북위 34도에서 40도 사이에 걸쳐 있고 ‘도적(Ladronis)’이라는 명칭을 표기해 놓고 있다. 일본은 ‘야파오(JAPAO)’로 중국은 ‘깜따오(CAMTAO)’로 되어 있다.<sup>67)</sup>

다음으로 1568년에 제작된 두라도(Vaz Dourado)<sup>68)</sup>의 해도가 있다. 이 해도는 20장으로 된 해도집 중의 하나로 「일본도」또는 「조선 및 일본 특별해도」라고 불리우고 있다. 두라도는 이 해도에서 조선을 중국에 붙은 삼각형 모양의 반도 형태로 그려 놓고 ‘꼰라이(CONRAI)’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꼬우라이(COURAI)’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sup>69)</sup> 또 ‘꼰라이(CONRAI)’반도 남쪽에 7개의 섬을 그려 놓고 포르투갈어로 ‘도적섬(dos Ildrois)’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을 뿐 상세한 명칭은 없다. 이처럼 두라도의 해도는 루이스의 해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sup>70)</sup>

다음으로 1595년에 작성된 랑그렌(Langeren)의 「동인도 지도」가 있다. 이 지도에서 중국 대륙 위에 있는 둥근 섬을 ‘꼬레아섬(Ilha de Corea)’과 ‘도적섬(I. dos Ladrones)’이라고 동시에 표기해 놓고 있으며, 그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섬에도 ‘꼬레아(Corea)’라고 표기하고 있다. 원래 이 지도는 네덜란드의 린쇼텐(Jan Huygen van Linschoten)이 랑그렌에게 제작을 의뢰해 만들어진 것으로, 린쇼텐은

66) 포르투갈의 해도 제작자로 1563년 10장으로 된 해도집을 제작하였다.

67) 韓相復, 『西洋學에서 본 韓國學』, 海潮社, 서울, 1988, p. 363.

68) 1520(?)~1580. 포르투갈의 해도 제작자로 인도의 고아(Goa)에서 동양해도 제작에 힘썼으며 1571년과 1573년에도 조선·일본·중국을 포함한 해도를 그린 바 있다.

69) 이에 대해 韓相復은 두라도(Vaz Dourado)의 독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韓相復, 앞의 책, p. 363.

70) 韓相復, 앞의 책, p. 362~363.

자신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수집한 각종 해도를 랑그렌에게 자료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596년 암스테르담에서 출간된 린쇼텐의 『동인도 여행기(ITINERARIO)』가 있다.

린쇼텐은 이 여행기에서 조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일본(IAPON)에서 멀지 않은 곳 즉, 위도 34도와 35도의 중국 해안과도 가까운 곳에 '꼬레섬(Insula de CORE)' 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섬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아직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주민이나 생산품이 어떤 것이 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sup>71)</sup>

이처럼 린쇼텐의 『동인도 여행기』에는 조선이 '꼬레(CORE)' 라고 섬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랑그렌의 「동인도 지도」에 '꼬레아(COREA)' 를 섬으로 그려 놓은 것과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다. 물론 랑그렌의 「동인도 지도」는 린쇼텐의 『동인도 여행기』보다 이미 1년 전에 작성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568년에 제작된 두라도의 「조선 및 일본 특별해도」에서 이미 조선이 '콘라이(CONRAI)' 반도로 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랑그렌이 두라도의 해도를 참고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1635년 블라워(Blaeu)<sup>72)</sup>의 「중국지도(China)」에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도적섬(I. de Ladrões)' 으로 표기되어 있다.<sup>73)</sup>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의 주변에 '도적' 또는 '도적섬'의 명칭이 나타난 시기는 1563년에서부터 1635년까지이며, 1655년 마르티니오의 『중국신지도첩』에 제주가 '풍마도'라는 이름이 나타난

71) 韓相復, 앞의 책, p. 183.

72) 이곳의 블라워(Blaeu)가 마르티니오의 『중국지도첩』 제작에 참여했던 J. Blaeu인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 W. J. Blaeu인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필자는 W. J. Blaeu로 생각된다.

73) 崔書勉博士收藏『西洋에서 作成된 韓國의 古地圖』展示目錄, 國際韓國研究院史料館, 1989, p. 27, 전시번호 156.



이후에는 서양지도상에서 '도적섬'의 표기가 자취를 감추었다.<sup>74)</sup> 이것은 마르티니오의 『중국신지도첩』이 출간되기 이전에는 서양에서 제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다른 지역의 지도 여러 곳에서도 '도적섬'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데, 1601년 제작된 헤레라(Herrera)의 「서인도제국지도(Descripcion de las Yndias Occidentales)」에는 조선을 '고려(Cory)'라고 아랍어로 음사하면서 일본의 동남쪽에 '도적섬(Ladroui)'을 그려 놓고 있다.<sup>75)</sup> 또 헤레라의 「세계지도」의 한 부분에도 '도적섬(yaole de. li. ladroui)'이 있으며,<sup>76)</sup> 1690년에 제작된 F. De Wit(더 비트)의 「타타르지도(Magnae Tartariae)」에는 일본 동쪽에 '도적섬(Ilha de Ladrones)'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sup>77)</sup>

이처럼 일본 부근의 섬뿐만이 아니라 세계지도상에서도 '도적섬'의 명칭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적섬'의 표기는 특별히 제주를 지칭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서양지도상에 나타난 '도적섬'의 표기는, 다만 당시 그 근처 해상에 해적선이 자주 출몰함을 알리는 경계의 뜻으로, 또는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나 섬에다 그 이름을 갖다 붙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74)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西洋에서 作成된 韓國의 古地圖」展示目錄에 수록된 제주관계 지도 중, 1655년 마르티니오의 『중국지도첩』출간 이후 1898년까지 제작된 지도가 모두 26종 소개되었는데, 이 지도에는 제주를 모두 '퐁마(Fungma)' 또는 '켈파르트(Quelpaert)'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75) 서정철, 『서양 고지도와 한국』, 빗갓있는 책들 102-23, 대원사, 서울, 1991, p. 43.

76) 위의 책, p. 58.

77) 崔書勉博士收藏 앞의 전시목록, p. 27, 전시번호 158.

## 2. 풍마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주가 서양지도상에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은 1655년 마르티니오의 『중국신지도첩』에서 ‘풍마도(I. Fungma)’라는 표기에서이다. ‘풍마도’의 어원(語源)은 원대(元代)에 제주의 별칭을 말한 풍부한 섬인 ‘풍마도(豐馬島)’라고 부르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 적어도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풍마’는 세계지도상에서 ‘켈파르트’와 함께 제주의 명칭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풍마’의 표기는 마르티니오의 『중국신지도첩』에 처음 소개된 ‘풍마도(I. Fungma)’ 이후 ‘푼마도(Funma I.)’, ‘푼노마(Funoma)’, ‘풍마도(Isle de Fungma)’, ‘푼마도(Fong ma I.)’, ‘푼마(Fongma)’, ‘푼마도(Fongma I.)’, ‘푼-마(Fon-ma)’, ‘푼마(Fonma)’, ‘푼니마(Fonima)’, ‘푼-마(Fong-ma)’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풍마(Fungma)’를 뜻한 것이다.

서양지도상에서 제주를 ‘풍마’라고 표기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마르티니오(Martino Martinio), 「중국제국신지도(Imperii Sinarvm Nova Descriptio)」, 1655, 45.5 59.5cm.

『중국신지도첩(Novus Atlas Sinensis)』에 실려 있는 중국전도로 ‘코레아(Corea)’가 뚜렷한 반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세계지도상에 제주의 명칭인 ‘풍마도(I. Fungma)’가 최초로 나타난 지도이다.

- (2) F. De Wit(더 비트), 「타타르·몽고·일본·중국신지도(Magnae Tartariae Magni Mogolis Imperii Iaponiae et Chinae, Nova Descriptio)」, 1670, 43.5 55cm.

마르티니오의 영향을 받은 지도로 제주가 ‘풍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3) 마르티니오(M. Martinio), 「중국지도(Il Regno Della China)」, 1682, 43.5 54.5cm.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풍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4) Rossi(로씨), 「타타르지도(La Gran Tartaria)」, 1683, 43 53cm.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풍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5) F. De Wit(더 비트), 「타타르지도(Magnae Tartariae)」, 1690, 43.1 54.2cm.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풍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6) 페르(N. De Fer), 「동아시아지도(La Partie Orientale de l'Asie)」, 1703, 22×32.5cm.  
 하멜에 의해서 알려진 '켈파르트(Quelpaerts)'가 크게 그려졌고 '풍마(Fungma)'가 그 밑에 따로 그려져 있다.
- (7) 들릴르(G. Del'isle), 「인도와 중국지도(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1705, 63×65.6cm.  
 제주가 '풍마(Fungma)'와 '켈파르트(Quelpaerts)'로 함께 표기되어 있다.
- (8) 들릴르(G. Del'isle), 「타타르지도(Carte de Tartarie)」, 1708, 47.5×61.5cm.  
 제주가 '푼마도(Funma I.)'로 표기되어 있다.
- (9) H. Moll(몰), 「중국지도(China)」, 1714, 18×24.5cm.  
 제주가 '푼마(Funma)'로 표기되어 있다.
- (10) M. Seutter(쇠터), 「아시아지도(Asia)」, 1725, 49.5×57cm.  
 제주가 '풍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11) J. B. Homann(호만), 「아시아지도(Asia)」, 1730, 19×58.5cm.  
 제주가 '풍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12) Pierre Vander(반데르), 「중국지도(La China)」, Holland, ca. 1730's, 26×36.5cm.  
 제주를 '풍마도(Isle de Fungma)'와 '켈파르트(de Quelpaerts)'로 함께 표기하고 있다.
- (13) I. M. Hasi(하시), 「Imperii Russici et Tartarilae Universal(타타르지도)」, 1739, 47.5×54.5cm.  
 당빌(D'Anville)<sup>78)</sup>의 영향을 받은 지도로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지조

78) 1697~1782. 프랑스 지도학자로 1735년에 제작된 뒤 할데(Du Halde)의 『중화제

우(Kitcheou)<sup>79)</sup>로 나와 있고 '퐁마도(Fong Ma I.)'와 '켈파르트(Quelpart)'가 각기 다른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4) T. G. Lotter(로터르), 「Opulentissimum Sinarum Imperium(중화제국지도)」, 1744, 49.5×57.5cm.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퐁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15) 보공디(Rovert de Vaugondy), 「아시아지도(Carte de l'Asie)」, 1750, 47×52.5cm.

제주가 '퐁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16) 벨랭(Bellin), 「광둥(廣東) 지방과 조선왕국지도(Carte de la Province de Quau-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ee)」, Paris, ca. 1750's, 30.5×24cm.

'퐁마(Fongma)'와 '켈파르트섬(Isle de Quelpaert)'이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7) 티리옹(I. Tirion), 「중국과 주변 지방의 신지도(Nouvelle Carte de l'Empire de la Chine et les pa s Circonvoisins)」, 1755 25×34cm.

제주가 '퐁마(Fungma)'로 매우 크게 그려져 있다.

- (18) 보공디(Robert de Vaugondy), 「중국제국지도(L'Empire de la Chine)」, 1757, 48.2×52.5cm.

'퐁마(Fongma)'와 '켈파르트(Quelpaerts)'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9) 티리옹(I. Tirion), 「아시아신지도(Nuova Carta dell Asia)」, 1761, 27.5×34cm.

---

국지-중화제국과 그 소속 타타르의 지리, 역사, 편년기, 정치, 박물지(Description G 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chez Henri Scheurleer, A la Haye, 1735, 4 Vols.)의 지도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1737년에 이 지도들을 모아서 별도로 『중국신지도첩(Nouvel Atlas de la Chine)』(A la Haye, 1737)을 간행하였다. 자세한 것은 朴大憲, 앞의 책, 상권, pp. 61, 88-93 참조.

79) '濟州'의 중국어 음價를 音寫하였다.

제주가 '퐁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20) 들릴르(G. Del'isle), 「아시아지도(Carte, d'Asie)」, 1762, 48.5×63cm.  
 '지조우(Tsitcheu)'와 '퐁마(Fungma)'를 같은 지명으로 보았고 '켈파르트(Quelpaert)'가 또다른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1) 벨렝(J. N. Bellin), 「조선왕국지도(Carte du Royaume de Kau-Li ou Cor e)」, 1764, 20.5×18cm.  
 '퐁마(Fung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2) 들릴르(G. Del'isle), 「타타르지도(Carte de Tartarie)」, 1766, 48.5×63cm.  
 제주가 '퐁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 (23) 본느(Bonne), 「중국타타르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1771, 29.5×41.2cm.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폰-마(Fon-ma)'인데 한반도의 형태는 당빌의 지도를 따랐다.
- (24) 던(S. Dunn), 「중국 성(省)과 일본지도(China divided into its Great Provinces, and the Isle of Japan)」, 1774, 31×44.5cm.  
 '퐁마(Fong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5) Zatta(자타), 「중화제국지도(Impero Della China)」, 베네시아(Venezia), 1784, 36.5×48cm.  
 '퐁마도(Fongma I)'와 '켈파르트섬(Quelpaert I)'이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6) Zatta(자타), 「중국타타르지도(La Tartaria Chinese)」, 베네시아(Venezia), 1784, 36.5×48cm.  
 제주가 '폰-마(Fon-ma)'로 표기되어 있다.
- (27) 본느(Bonne), 「중화제국과 조선왕국 및 일본군도지도(Carte de l'Empire de la Chine et du Royaume de Coree avec les Isles du Japon)」, 1786, 32×21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8) F. L. Gussefeld(휘설펜트), 「아시아지도(Chart von Asien)」, 1793, 51×61cm.

제주가 ‘폰마(Fonma)’로 표기되어 있다.

- (29) 본느(M. Bonne), 「중국타타르와 조선왕국 및 일본군도지도(Tartarie Chinoise, Roy. de Coree et Isle du Japon)」, 1794, 23.5×34.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0) 던(S. Dunn), 「일본제국지도(The Empire of Japan)」, 1794, 47.5×63.7cm.

제주가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s)’로 함께 표기되어 있다.

- (31) 케리(J. Cary), 「중국신지도(A new map of China)」, 1801, 46.5×51.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s)’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2) W. Faden(파던), 「아시아지도(Asia)」, 1808, 52.5×64.5cm.

‘포니마(Foni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3) 케리(J. Cary), 「중국신지도(A new map of China)」, 1811, 46×51.5cm.

‘폰-마(Fon-ma)’는 크게 ‘켈파르트(Quelpaert)’는 작게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4) 핀커톤(J. Pinkerton), 「일본지도(Japan)」, 1815, 50×65cm.

‘폰마(Fongma)’와 ‘켈파르트 또는 켈파르트(Kelpraet or 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5) 톰슨(Thomson), 「아시아지도(Asia)」, 1815, 50×60cm.

‘포니마(Foni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6) 쿠퍼(H. Cooper), 「중국·일본지도(China and Japan)」, 1823, 46.5×56.5cm.

제주가 '폰마(Fonma)'로 표기되어 있다.

- (37) 와일드(J. Wyld), 「중국지도(China)」, 1829, 22×29.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8) 로버츠(Robert's), 「중화제국지도(Map of the Empire of China)」, ca. 1829, 22.5×35.5cm.

'퐁-마(Fong-ma)'와 '켈파르트(Quelpaerts)'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9) 핀리(A. Finley), 「중국지도(China)」, 1832, 22×29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40) W. H. Lizars(리사르스), 「China」, 1840, 19×23.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 켈파르트

1653년 8월, 조선 해안에 난파된 하멜 일행은 자신들이 북위 33°32'에 있는 '켈파르트섬(Quelpaerts Eijland)'<sup>80)</sup>, 즉 제주에 도착한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하멜 일행 중 한 사람인 일등 항해사 헨드릭 얀스(Hendrick Janse)가 관측한 결과이며, 그들은 그때 이미 제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제주의 유래는 대략 다음과 같다.

17세기 초엽 동아시아에 띄운 화란배는 대개 선평이 좁고 긴 갯리선이었는데, 이런 형태로 1630년경 제작된 첫 배의 이름이 '갯리선 켈파르트 드 브락('t Galjodt't Quelpaert de Brack)'이었다. 이름이 기니까 자연 '갯리선 켈파르트('t Galjodt't Quelpaert)'라고 줄여 부르게 되었다. 바로 이 배가 1642년경 동북쪽을 항해하다가 제주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화란동인도 회사에 보고했다. 이런 연유로 제주는 처음에 '켈파르트호가 발견한 섬'으

80) Hendrik Hamel, tr. B. Hoetink, 앞의 책, p. 9.

로 불리워졌으나, 어느새 이름 자체가 ‘켈파르트’로 변모하고 말았다. 동인도회사 보고서에 ‘켈파르트’라는 섬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1648년이며, 화란지도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 것은 1687년인데, 이것은 『하멜 표류기』가 출판되고 나서 ‘켈파르트섬’이 널리 알려진 때문이다.<sup>81)</sup>

위의 내용으로 보아 1642년경 화란에서는 이미 제주의 존재를 알고 ‘켈파르트섬’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제주가 ‘켈파르트’로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하멜표류기』가 출간된 1668년 이후의 일이다.

서양지도상에서의 ‘켈파르트’의 표기는 168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제주의 또다른 명칭인 ‘퐁마’는 19세기 중엽까지 ‘켈파르트’와 함께 통용되었다. ‘켈파르트’의 표기는 하멜의 ‘켈파르트섬(Quelpaerts Eijland)’ 이후 ‘켈파르트(Quelpaerts)’, ‘켈파르트(de Quelpaerts)’, ‘켈파르트(Quelpart)’, ‘켈파르트(Quelpaert)’, ‘켈파르트(Quelparts)’, ‘켈파르트섬(Isle de Quelpaert)’, ‘켈파르트섬(Quelpaert I.)’, ‘켈프라엣(Kelpraet)’, ‘I. Mouse ou Quelpaert(모우세 또는 켈파르트섬)’, ‘켈파르트섬(Quelpart I.)’, ‘Mouse(모우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양지도상에서 제주를 ‘켈파르트’라고 표기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페르(N. De Fer), 「동아시아-중국 타타르대제국과 일본제국(La Partie Orientale de l'Asie ou se trouvent le Grand Empire des Tartaries Chinois et celui du Japon)」, 1703, 23×33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s)’로 제주목이 ‘목안(Mogan)’<sup>82)</sup>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하멜표류기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2) 들릴르(G. Del'isle), 「인도·중국지도(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81) Hendrik Hamel, tr. B. Hoetink, 앞의 책, p. 97; 강준식, 앞의 책, p. 20.

82) 본서 161p. 참조.



1705, 63×65.6cm.

제주에 해당하는 '퐁-마(Fong-ma)'가 남해 서부에 있고 화란 해도에서 인용한 '켈파르트(Quelpaert)'도 남해 중부에 있다.

- (3) Pierre Vander(반테르), 「중국지도(La Chine)」, Holland, ca. 1730's, 26×36.5cm.

제주를 '퐁마도(Isle de Fungma)'와 '켈파르트(de Quelpaerts)'로 함께 표기하고 있다.

- (4) I. M. Hasii(하시), 「Imperii Russici et Tartarilae Universal」, 1739, 47.5×54.5cm.

당빌(D'Anville)의 영향을 받은 지도로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지조우(Kitchiou)'로 음사되어 있고 '퐁마도(Fong ma I.)'와 '켈파르트(Quelpaerts)'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5) 벨렝(N. Bellin), 「Das Kaiserthum China」, 1748, 28.5×39.5cm.

당빌의 중국 총도를 재편집한 것으로 제주가 '켈파르트(Quelpart)'로 표기되어 있다.

- (6) 상송(Sanson), 「아시아 주변국가와 제국 및 왕국지도(L'Asie divisée en ses Principaux Empires et Royaumes)」, 1749, 49.5×66cm.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조선해(Mer de Corée)'로 제주는 '켈파르트(Quelparts)'로 표기되어 있다.

- (7) 벨렝(Bellin), 「광둥(廣東) 지방과 조선왕국지도(Carte de la Province de Quau-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ée)」, Paris, ca. 1750's, 30.5×24cm.

'퐁마(Fongma)'와 '켈파르트섬(Isle de Quelpaert)'이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8) 「광둥(廣東) 지방과 조선지도(Carte de la Province de Quantong ou Lyan-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ée)」, 1755, 26.3×21.3cm.

제주에 해당하는 '퐁-마(Fong-ma)'가 남해 서부에 있고 '켈파르트(Quelpaert)'도 남해 중부에 나타나 있다.

- (9) 보공디(Robert de Vaugondy), 「중국제국지도(L' Empire de la Chine)」, 1757, 48.2×52.5cm.  
 '퐁마(Fongma)' 와 '켈파르트(Quelpaerts)' 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0) 들릴르(G. Del' isle), 「아시아지도(Carte d' Aise)」, 1762, 48.5×63cm.  
 '제주' 를 음사한 '지조우(Tsitcheu)' 와 '퐁마(Fungma)' 를 함께 표기하면서 '켈파르트(Quelpaert)' 가 또다른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1) 벨링(J. N. Bellin), 「조선왕국지도(Carte du Royaume de Kau-Li ou Core)」, 1764, 20.5×18cm.  
 '퐁마(Fungma)' 와 '켈파르트(Quelpaert)' 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2) 보공디(Rovert de Vaugondy), 「동북아시아의 새 면모(Nouvle Representation des C tes Nord et Est de l' Asie)」, Paris, 1772, 36×43.5cm.  
 조선 반도 남쪽에 섬의 표시없이 이름만 '켈파르트(Quelpaerts)' 라고 표기되어 있다.
- (13) 던(S. Dunn), 「중국 성(省)과 일본지도(China Divided into its Great Provinces, and the Isle of Japan)」, 1774, 31×44.5cm.  
 '퐁마(Fongma)' 와 '켈파르트(Quelpaert)' 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4) Zatta(자타), 「중화제국(Impero Della China)」, Venezia, 1784, 36.5×48cm.  
 '퐁마도(Fongma I)' 와 '켈파르트섬(Quelpaert I)' 이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5) 본느(Bonne), 「중국·조선·일본지도(Carte de l' Empire de la Chine et du Royaume de Cor e avec les Isles du Japon)」, 1786, 32×21cm.  
 '폰-마(Fon-ma)' 와 '켈파르트(Quelpaert)' 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6) 보공디와 들라마르슈(Rovert de Vaugondy & C. F. Delamarche), 「아시아 주요국가와 제국 및 왕국지도(Aisie divisée en ses Principaux Eta

ts, Empires & Royaumes)」, 1791, 49×67cm.

제주에 해당하는 섬이 ‘켈파르트(Quelpaerts)’로 표기되어 있다.

- (17) 본느(M. Bonne), 「중국·조선·일본지도(Tartarie Chinoise, Roy. de Corée et Isles du Japon)」, 1794, 23.5×34.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18) 던(S. Dunn), 「일본제국지도(The Empire of Japan)」, 1794, 47.5×63.5cm.

제주가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s)’로 함께 표기되어 있다.

- (19) 라 페루즈(La Pérouse), 「제주부분지도(Part of the Island of Quelpaert)」, 1798, 36×34cm.

라 페루즈(La Pérouse) 일행이 1787년 5월에 제주 남서단을 실측하고 이 지도를 작성했다. 제주를 ‘켈파르트(Quelpaert)’로 표기하였다.

- (20) 케리(J. Cary), 「중국신지도(A new map of China)」, 1801, 46.5×51.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s)’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 (21) Stieler(스티엘러), 「중국지도(Carte von China)」, 1804, 46.5×52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로 표기되어 있다. 라 페루즈의 영향을 받았다.

- (22) 케리(J. Cary), 「중국령 타타르와 독립타타르지도(Chinese and independent Tartary)」, 1806, 45.5×50.5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s)’로 표기되어 있다. 라 페루즈의 영향을 받았다.

- (23) W. Faden(파든), 「아시아지도(Asia)」, 1808, 52.5×64.5cm.

‘포니마(Foni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4) 핀커튼(Pinkerton), 「일본지도(Japan)」, 1809, 50.5×66cm.

제주를 ‘켈파르트(Kelpraet)’와 ‘켈파르트(Quelpaert)’로 함께 표기하면서 ‘폰마(Fongma)’를 별개의 섬으로 표기하고 있다.

- (25) 케리(J. Cary), 「중국신지도(A new map of China)」, 1811, 46×51.5cm.  
 ‘폰-마(Fon-ma)’는 크게, ‘켈파르트(Quelpaert)’는 작게 나타나 있다.
- (26) 핀커톤(J. Pinkerton), 「일본지도(Japan)」, 1815, 50×65cm.  
 ‘풍마(Fongma)’와 ‘켈파르트·켈파르트(Kelpraet·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7) 톰슨(Thomson), 「아시아지도(Asia)」1815, 50×60cm.  
 ‘포니마(Foni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28) 브뤼에(A. H. Brué), 「중화제국과 일본전도(carte générale de l'Empire Chinois et du Japon)」, 1821, 36.5×51.5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로 표기되어 있으며, 실제 모습과 비슷해진다.
- (29) 와일드(J. Wyld), 「중국지도(China)」, 1829, 22×29.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0) 로버츠(Robert's), 「중화제국지도(Map of the Empire of China)」, ca. 1829, 22.5×35.5cm.  
 ‘풍-마(Fong-ma)’와 ‘켈파르트(Quelpaerts)’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1) 핀리(A. Finley), 「중국지도(China)」, 1832, 22×29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2) M. Lizars(리사르스), 「중국지도(China)」, 1833, 38×44cm.  
 ‘풍마(Fungma)’는 없어지고 ‘켈파르트(Quelpaert)’만 남게 된다. ‘풍마(Fungma)’가 없어지는 것은 1816년 맥스웰(Maxwell)과 홀(Hall)의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다.
- (33) W. H. Lizars(리사르스), 「China」, 1840, 19×23.5cm.  
 ‘폰마(Fonma)’와 ‘켈파르트(Quelpaert)’가 각기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 (34) 랩킨(J. Rapkin), 「일본·조선지도(Japan & Corea)」, London, ca. 1850, 27×36.5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로 표기되어 있다.

- (35) 하퍼 형제(Harper Bro.), 「중국지도(China)」, New York, ca. 1855, 34.5×41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로 표기되어 있다.

- (36) J. Bartholomew(바르토로메우), 「중국지도(China)」, 1860, 43×55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로 정확히 나타나 있다. 제주의 해안선은 1845년 영국의 벨처에 의해서 정확히 측량된 바 있다.

- (37) 존슨(A. J. Johnson), 「존슨 중국지도(Johnsons's China)」, 1867, 33.5×39.5cm.

제주가 '켈파르트(Quelpaert)'로 표기되었는데 모양이 부정확하다.

- (38) 골디에(J. Gaultier), 「불화전쟁-중국과 일본(Guerre franco-Chinoise Chine et Japon)」, 1884, 45.5×65cm.

'I. Mouse<sup>83)</sup> ou Quelpaert(모우세섬 또는 켈파르트)'로 표기되어 있으며 형태가 부정확하다.

- (39) 센츨리사(The Century Co.), 「센츨리사의 일본·조선지도(The Century Atlas, Japan and Korea)」, New York, ca. 1897, 29.5×40.5cm.

제주가 '켈파르트섬(Quelpaert I.)'으로 표기되어 있다.

- (40) 비숍(I. B. Bishop), 「조선 및 주변국전도(General map of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r)」, 1898, 25.5×27.3cm.

제주가 '켈파르트섬(Quelpart I.)'으로 되어 있고, 동북쪽의 '우도(U-do)'까지 표기하고 있다.

- (41) 스텐포드(Edward Stanford), 「스텐포드의 중국동부·일본·조선지도(Stanford's map of Eastern China, Japan, and Korea)」, London, 1900, 67×56cm.

'켈파르트섬(Quelpaert I.)'과 'Mouse(모우세)'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Mouse(모우세)'의 표기는 본서 162p. 참조.

83) Hendrik Hamel, tr. B. Hoetink, 앞의 책, p. 12.

- (42) 워커(Geo. H. Walker & Co.), 「만주·조선·일본지도(Map of Manchuria, Korea & Japan)」, Boston, ca. 1904, 29.5×39.5cm.  
 ‘켈파르트(Quelpaert)’와 ‘제주(Tse-tsiu)’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 4. 제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양에서의 제주의 명칭은 ‘퐁마’ 또는 ‘켈파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그러나 정작 이 명칭들은 제주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쓰여지지도 않은 이름이다. 다만 서양에서만 통용되던 이름이다.

1703년 페르(N. De Fer)가 제작한 「동아시아-중국 타타르대제국과 일본제국(La Partie Orientale de l'Asie où se trouvent le Grand Empire des Tartaries Chinois et celui du Japon)」지도에는 제주가 ‘목안(Mogan)’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당시 제주주민들이 사용하던 제주목을 지칭한 말이다. 이 명칭은 제주 주민들에 의해 사용되던 제주의 명칭이 서양지도상에 가장 정확하게 표기된 예이다. 이것은 1668년 『하멜표류기』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원서에는 ‘목안(Moggan)’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병도·김창수·강준식·김태진·신복룡 등은 목사(Mocxo: 牧使)의 저택을 의미하는 목관(牧館)으로 풀이하고 있으며<sup>84)</sup>, 비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sup>85)</sup> 또 레드야드는 목사를 지칭하는 목관(牧官)으로 추정하고 있다.<sup>86)</sup>

84) 李丙巖 譯註, 『하멜漂流記』, 博文文庫 10-9, 博文書館, 京城, 1939, p. 25; 金昌洙 譯, 『하멜漂流記』, 新裝版 世界思想全集 10, 乙酉文化社, 서울, 1983, p. 362; 강준식,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서울, 1995, p. 21; 김태진 역, 『하멜일지 그리고 조선국에 관한 기술』, 전남대학교 출판부, 광주, 1996, p. 73, 주3; H. 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하멜표류기』, 집문당, 서울, 1999, pp. 27~28.

85) Jean Paul Buys, *Hamel's Journal and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1653~1666*, Seoul, 1994, p. 44.

86) Gari Ledyard, *The Dutch Come to Korea*,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Seoul, 1997, p. 10.

그러나 ‘Moggan(목안)’은 牧館도 아니고 牧官도 아닌 ‘제주목’을 이름한 것으로 ‘목(牧)안(內)’을 말한 것이다. 즉 ‘제주목의 성(城)안’이란 뜻으로 제주를 지칭한 말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안’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때도 역시 “(1) 문밖의 반대되는 곳 (2) 성내(城內)와 같음”<sup>87)</sup>의 뜻으로, 또는 “(1) 문의 안 (2) 성문(城門)의 안. 서울의 동대문·남대문·서대문 안에 있는 변화한 거리”<sup>88)</sup>의 뜻으로 쓰인다. ‘목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직까지도 제주에서는 ‘제주(시)’를 ‘목안’이라고 부르는 촌로들이 있다.<sup>89)</sup>

한편 1703년 페르(N. De Fer)의 지도에서 제주목을 ‘목안(Mogan)’이라고 표기한 예도 있다. 물론 이것은 『하멜표류기』의 내용 중 ‘목안(Mogga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페르는 ‘목안(Mogan)’을 지명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란 명칭이 서양지도에 처음 나타난 것은 1737년에 당빌(D’Anville)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Nouvel Atlas de Chine)』에서다. 그 후 1739년 하시(I. M. Hasii)의 『Imperii Russici et Tartarilae Universal(타타르지도)』에서 ‘지조우(Kitchiou)’로, 1762년 들릴르(G. Del’isle)의 『아시아지도(Carte d’Aise)』에서 ‘지조우(Tsitcheou)’로 표기한 예가 있다.<sup>90)</sup>

한편 1884년 골디에(J. Gaultier)의 「불화전쟁-중국과 일본(Guerre franco-Chinoise Chine et Japon)」 지도에는 ‘I. Mouse ou Quelpaert(모우세섬 또는 켈파르트)’라는, 1900년 스텐포드(Edward Stanford)의 「스

nch, Seoul, 1971, p. 20; 레드야드 編, 朴允熙 譯, 앞의 책, p. 36.

87) 文世榮, 『修正增補朝鮮語辭典』, 1949, p. 582.

88) 신기철·신용철, 『우리말 큰사전』상, 三省出版社, 1980, 증보 9판, p. 1242.

89) 이러한 사실을 제주의 소설가 오성찬과 영동대학교 한중선 교수에게서 들은 바 있다.

90) ‘지조우(Kitchiou)’ 또는 ‘지조우(Tsitcheou)’는 ‘제주’의 중국어 음가를 음사한 것이다.

텐포드의 중국동부·일본·조선지도(Stanford's map of Eastern China, Japan, and Korea)」에는 'Mouse(모우세)'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이것은 『하멜표류기』에 나오는 '목사(Mocxo, 牧使)'를 전사 또는 음역하는 과정에서 'Mouse(모우세)'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1904년 워커(Geo. H. Walker & Co.)사에서 제작한 「만주·조선·일본지도(Map of Manchuria, Corea & Japan)」에는 '제주'를 음사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Tse-tsiu)'의 표기가 나타난다. 그 후 서양지도에 비로소 '제주'의 명칭이 자리잡게 된다.

## 맺는말

지금까지 13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기 사이에 전개된 우리나라와 서양과의 관계를 통해, 같은 시기에 서양 지도상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을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때이다. 이 시기의 기록으로는 9세기 경에 씌여진 압바스조 이슬람제국의 지리학자 쿠르다지바의 『제도로 및 제왕국지』에서 신라의 지리적 위치와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1154년 무슬림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의 『천애황단갈망자의 산책』에서 신라를 여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뤼브뤼크는 몽고를 여행하고 1255년에 『뤼브뤼크 여행기』를 남겼는데, 이곳에는 '섬의 정부 카우레'라고 하는 고려에 관한 서양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는 1295년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서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의 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고려를 지칭한 '카울리'란 말을 단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고려를 서양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듯 이 시기에 서양에서 출간된 우리나라 관계도서는 불과 몇 종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고작해야 신라·고려 등의 국호를 지칭해 소개한 정도이다. 따라서 제주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명은 오랜 전통을 지니면서 발전되어 왔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도 서양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비 속의 나라였다. 16세기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의 극동항해를 통해 유럽은 중국과 일본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고, 곧이어 이들 나라와 교역을 시도하는 한편 선교사를 파견해 본격적인 동서문화의 교류가 시작됐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스페인 예수회 소속의 수도사 세스페데스 신부는 1593년 12월 28일 일본군을 따라 웅천항에 도착하니, 그는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다. 웰테브레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1627년 오베르커크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경주 근처에 표착했다. 그는 동료 선원 2명과 함께 음료를 구하려고 상륙했다가 관현에게 붙잡혀 1628년 서울로 압송된 뒤, 동료들과 함께 훈련도감에서 총포 제작의 일을 했다. 그 후 1653년 8월 16일 새벽, 네덜란드의 스페르웨르호가 제주 남쪽 바닷가에 표착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멜을 포함한 36명의 생존자가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선을 방문한 것이다. 이때 웰테 브레는 하멜 일행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하멜 일행이 조선에서 억류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 1655년 서양지도상에 ‘풍마도’라고 제주를 지칭한 명칭이 최초로 나타나게 된다.

1666년 하멜은 일행 7명과 함께 조선을 탈출해 1668년 암스테르담에 도착한후 『하멜표류기』를 출간했다. 이 책이 서양에 알려지자 서양에서는 조선을 경악과 공포의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고 아예 조선 부근의 항해를 꺼리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하멜 이후 1세기가 넘도록 조선을 찾은 서양인은 없었다.

1787년 프랑스의 해양탐험가 라 페루즈는 제주 남동쪽 근해를 탐사

하고 한라산의 높이를 약 6천피트로, 제주 최남단을 동경 126°35' 북위 33°14' 으로 측정하는 성과를 남겼다. 1816년 영국의 알세스트호와 리라호는 조선의 서남해안을 탐사하고 제주 근해를 둘러보았다. 이때의 항해기가 엘리스, 맥레오드, 홀에 의해서 각각 출간되었다. 1832년 귀츨라프는 조선과의 통상과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을 찾아왔다가 제주 근해를 둘러보고 무역관 설치와 선교기지 개발을 희망하기도 했다. 1845년 벨처는 제주근해를 일주하면서 해안선을 정밀 측량했고, 블레이크니는 1859년 제주해협을 비롯한 조선의 남해안 수로를 조사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의 존재가 서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우연히 제주 근해에서 난파당한 표류자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는 탐험가, 선교사들만이 제주를 찾아왔다. 이들은 제주를 방문하고는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음은 물론, 제주를 극동 무역항로의 중심기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서양지도상에서 제주로 추정되는 모습이 처음 나타난 것은 1635년 블라와의 「중국 지도」에서 '도적섬'이라고 표기한 것에서부터이다. 그러나 세계지도상에서 '도적섬'의 명칭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도적섬'의 표기는 특별히 제주를 지칭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그 근처 해상에 해적선이 자주 출몰함을 알리는 경계의 뜻으로, 확인되지 않은 지역 또는 섬에다 그 이름을 갖다 붙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 후 1655년 마르티니오의 『중국신지도첩』에서 비로소 제주의 명칭인 '풍마도'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난다. 또 1668년 하멜의 『하멜표류기』에서 '켈파르트'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후 1687년 네덜란드지도에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나게 된다. 그 후 서양지도에 '풍마'와 '켈파르트'라는 이름이 함께 나타나다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켈파르트'만 남게 된다. 1737년 당빌의 『신중국지도첩』에서 '제주'의 중국어 발음을 음사한 '지조우'가 알려진 후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이 더러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켈파르트’도 점차 사라지고 비로소 ‘제주’로 알려지게 된다.

이처럼 제주와 서양간의 교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과의 교류 자체를 제주의 지방관은 물론 조선 조정에서는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상 서양측의 일방적인 접촉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들의 제주 방문 및 탐사의 사실들은 거의 그때마다 그들의 나라는 물론 서양 여러 나라에서 책과 지도로 간행되어 오늘 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물론 이들의 내용이 다소 빈약하거나, 잘못 전해지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당시의 사정을 이만큼이라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놀랍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록들은 우리 선조들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당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주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제주의 역사를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씌어지고 연구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주서양 교류사와 관련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 The Study on the Features and Name of Jeju Island drawn on the Western Map.

Bak Daeheon

### Abstracts

Our country has been known to the west by the French, Guillaume de Rubruck for the first time in his book, called *Itinerarium fratris William de Rubruquis de ordine fratrum Minorum*.

The features seemingly looked like Korea first appeared on Lopo Homens map in 1554 and the name of our country was first recorded on Vaz Dourados map in 1568.

The westerner who visited our country for the first time was Spanish missionary, G de Cespedes in December, 1593 in the midst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fter that, in August, 1653, a Dutch ship called *Sperwer* was washed up on the shore of Jeju island due to a storm and 36 people including H. Hamel landed on Jeju for the first time as a westerner.

Meanwhile, the feature looked like Korea first appeared on China by J. Blaeu in 1635. At that time, the map was marked as I. de Ladrões and it is partly because the westerner couldn't realize the existence of Jeju island. In 1655 on M. Martinios *Novus Atlas Sinensis*, the name of Jeju island was recorded as I. Fungma which means island with many horses and in *Journal van de ongeluckighie Voyagie vant Jacht de Sperwer van Batavia ghedestineert na Tayowan int Jaer 1653* by H. Hamel in 1668, *Quelpaerts* was used for the name of Jeju. Later on, *Fungma* and *Quelpaerts* were known to be the name of Jeju on the western map and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Fungma*

disappeared and only Quelpaerts remained. The name, Jeju, was first shown in *Nouvel Atlas de Chine* by D Anville in 1737 and it was pronounced as Kitchiou which is the Chinese pronunciation of Jeju. Also, the maps influenced by this name were found occasionally and later, in the 20th century, Quelpaerts disappeared gradually and the name Jeju was settled.

In this study,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the west from the middle of 13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ir view toward Jeju island were examin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western maps.

Particularly, the feature of Jeju island on the western maps and its name were compared chronologically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

The study related to this is *Western Books on Korea* written by myself and the fundamental knowledge was provided.

These are the books on Joseon Dynasty written by the western missionaries, explorers, soldiers and scholars based on their investigation and researches from 1655 until 1949 for roughly 300 years. And there are 261 wood-block printed books and 287 books of 188 kinds in the bibliography. Accordingly, we can get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on the exchange between Jeju and the west from these books.

As for the material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59 kinds of maps on Jeju island produced in the west from 1655 to 1904 were introduced, and most of these materials were owned by Youngwol Book Museum and selected from the exhibited lists of Ancient Korean maps drawn in the west.

In the collection of the materials and its selection, the authors subjective view was involved to a degree and there must be considerable amount of materials which were not identified by the author.